

이라크와 CNN의 '밀월관계' 추적

CNN의 활약상 그린 「바그다드로부터의 생방송」



걸프전때 CNN의 생방송을 총지휘했던 로버트 비이너는 CNN이 후세인과 모종의 결탁으로 걸프전의 실황중계권을 따낼 수 있었다고 밝힌다.

지난해 초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분쟁으로 격발된 걸프전쟁은 미국의 손쉬운 승리로 끝났지만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의견이 분분할 문제로 남겨진 것이 적국의 수도에서 텔레비전 생방송을 송신했던 CNN의 보도자세에 관한 것이다. 실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통틀어 전쟁시에 적국의 수도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내보낸 일은 전대미문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바그다드에서 CNN의 생방송을 총지휘했고, 지금은 유럽지역 책임자로 있는 로버트 비이너(Robert Wiener)가 최근 「바그다드로부터의 생방송」(“LIVE FORM BAGDAD, Gathering News at Ground Zero.” 304pp, New York: Doubleday)을 상재하여, 대단히 흥미롭고 그러면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독립된 단편들을 통해, 당시 바그다드 실황중계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펼친 히스테리에 가까운 쟁탈전이며, CNN이 이라크의 팻발선 지배자들과 벌인 줄다리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공

포와 두려움들을 대단히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바그다드로부터의 생방송」은 1990년 8월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으로부터 CNN의 바그다드 특파원들, 버나드 쇼, 존 홀리만, 그리고 익히 알려진 피터 아네트 기자들이 다국적군의 첫 이라크 폭격을 생방송하는 데 이르기까지 약 5개월간의 혼란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 바그다드 특파원들은 베트남전쟁의 포연을 헤집고 다니던 베테랑들이었다.

다국적군의 극적인 야간공습은 91년 1월16일에 감행되었다. 당시 비이너를 위시한 특파원들은 바그다드의 알 라시드호텔 9층에서 유리창 너머 전개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아틀란타의 CNN본사와 연결되는 특수 송신장비를 통해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화면은 뒤에 송출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존 홀리만 기사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민간인이 거주하는 곳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으며, 특히 회교사원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

았다”는 리포트를 발신하였다. 이를 받아, 앵커맨이던 버나드 쇼는 지난 밤의 폭격이 결코 ‘무차별 폭격’이 아니었으며, 폭격에 사용된 선별공격용 스마트 폭탄의 성능은 대단히 ‘스마트’했다고 정리하여 전할 수 있었다.

그 직후 이라크의 검열이 닦혔다. 그러나 그들은 CNN이 휴대용 텔레비전 방송장치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해주었고, 따라서 특파원들은 알 라시드호텔에서 직접 화면과 음성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라크정부는 왜 그런 배려를 했을까? 비이너의 설명에 따르면 이라크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사무실에서 CBS나 NBC, 또는 ABC가 아니라 CNN 뉴스밖에 볼 수 없었고, 따라서 CNN을 통해서만이 사담 후세인의 연설을 미국민들에게 2시간여 동안 청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NN은 이라크 뉴스방송을 편집하여 바로 세계로 송신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간단히 말해서 후세인은 검열의 눈길과 보호명목의 압력을 멈추지 않은 상태

에서 CNN방송의 바그다드주제를 허용함으로써(게다가 경쟁 방송사들을 모두 내쫓은 상태에서) 세계에 자신의 대의명분을 밝힐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여타 방송사들, 뿐만 아니라 일부 미국의원들은 CNN이 “후세인의 호주머니에서 놀고 있다”고 투덜댔지만, 비이너는 이 의견에 대해 입을 빼죽이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용했고, 또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를 이용했던 것일 뿐”이라고 그런 주장을 담담히 끊어버린다.

1990년 말 수백명의 유럽 ‘손님들’이 후세인에게 감금되었다가 풀려나는 ‘구미를 당기는’ 일이 생겼다. 서방 언론사라면 이러한 사건은 톱감의 재료였다. 그는 이라크 당국으로부터 이 석방장면을 하루 전날 미국대사관 내에서 이라크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장면을 CNN이 녹화하여 세계에 독점 방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평화로운 바그다드 시내의 정경, 가령 시민들이 식료품을 사고 있는 장면을 밑에다 깔고서 말이다. 그는 냅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 리포터의 멧마디를 첨가해서 방송해 버렸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CNN과 이라크 당국이 서로 이용했던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스스로도 기록하고 있듯 유태계 미국인인 비이너는 후세인이 유태인들을 절멸시켜 버리겠다는 공언에 당혹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는 이라크 당국자들에게 자신은 충심으로 평화주의자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국적군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미국 방송기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곤 했다고 한다. 그즈음 그는 이라크 당국의 경고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이라크 군인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계획을 취소하고 그들의 감시 아래 평화로운 점령지, 쿠웨이트를 홍보방송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CNN 본사가 요구하는 핵심이 UN의 이라크의 쿠웨이트를 철수요구 마감일인 1월15일 후세인과의 인터뷰 기사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CNN 본사는 이를 위해 앵커맨인 버나드 쇼를 바그다드로 파견하여 후세인의 회견요청을 기다렸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이를 기회로 걸프전 취재의 감독격인 비이너는 CNN의 취재지침을 전쟁장면을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전쟁은 일촉즉발의 것으로 현실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터지자 CNN 사람들은 철수하거나 철수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철수쪽을 택했다. 두 아들의 아버지인 비이너 역시 폭탄이 투하되기 시작한지 1주일 후 철수팀에 합류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아무래도 헤밍웨이식의 기자생활은 좀처럼 힘든 것이었다. 사실 걸프전 취재의 영웅 피터 아네트 기사는 예루살렘 주재원이었다. 그런데 다른 기자들이 바그다드로 가기를 꺼렸기 때문에 그는 바그다드로 가겠다고 자청했다. 그리하여 그는 알 라시드 호텔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을 생방송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가 화면의 정 중앙에서 “이것은 대단히 환상적인 기회입니다”라는 멘트로 시작되는 흥분된 그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CNN은 그 자체가 큰 이야기거리가 된 것이다.

비이너의 이 책은 어쩌면 걸프전에 대한 CNN의 활약의 제 1탄에 불과할지 모른다. 피터 아네트 기자가 그의 체험에 토대하여 새로운 글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본격적인 제 2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계의 가장 쿠르트 볼프의 진모엿볼 책 출간

쿠르트 볼프(Kurt Wolff)는 금세기가 낳은 가장 특이한 출판업자일 것이다. 그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태디셀러인, 악셀 문테의 「샌미켈레의 이야기」의 출판요청을 받고서 그 소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케케묵고, 허황되며 당혹스럽다”는 자신의 느낌만으로 거절했다. 그즈음 또한 그는 “한 기묘한 교수”로부터 자신의 「독일의 트리스테로부터」라는 작품을 간행해 준다면 그 번역권을 출판사에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다. 그후 그 원고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였다고 회상한다. 바로 그 직전에도 그는 오스왈드 슈펜글러의 「서구의 몰락」 출판요청을 받고서 그 원고가 보다 학술적인 출판사에서 다루는 것이

낮겠다는 판단으로 읽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 기실은 그 원고를 되돌려 보낸 이유가 '슈팽글러의 글씨가 너무 악필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는 40년이 지난후에도 이러한 금세기 최고의 책들을 그가 맨 처음으로 거절했었다는 점을 자랑으로 여겼는데(다시말해 그만큼 세계적 필자들이 그에게 출판을 가장 먼저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러한 회상을 밝히기는 그가 70대 노인이 되어 독일의 라디오방송을 통해서였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의 신화였다. 독일의 한 대학에 재학중이던 시절부터 라이프치히에서 작은 출판사를 경영할 정도로 조속했던 그는 1913년 정식으로 '쿠르트 볼프 출판사'를 차렸고 그후 평생에 걸쳐 유명한 '히페리온 앤드 판테온 카사 출판사'를 위시하여 익히 잘 알려진 6개의 출판사'를 계속 설립했다. 한 예를 들자면 1940년대에 나치를 피해 뉴욕에 망명해서도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판테온 출판사'를 세울 정도였다. 그후에도 아내 헬렌과 함께 '헬렌 앤드 쿠르트 볼프 출판사'를 세워 죽을 때까지 현장에서 활동했다.

그의 한평생에 걸친 출판활동 가운데 그와 함께 책을 냈던 저명한 필자나 예술가들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프란츠 카프카, 하인리히 만, 로버트 발서, 막스 브로드, 칼 크라우스, 오스카 코코슈카, 프란츠 베르켈,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아놀드 츠바이크, 카렐 카펙, 프란츠 마스틸, 조세프 로스, 스테판 조지, 로베르트 무질, 폴 발레리,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마르크 샤갈, 주세페 디람페두사, 조이 아담슨,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그리고 쿤터 그라스... 일별하더라도 금세기 최고의 문학자, 사회과학자 및 자연과학자 그리고 미술가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그만큼 오늘날 지식사회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그가 1940년대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아파트를 세내어 판테온 출판사를 막 시작했을 때, 폴과 매리 멜론이 그에게 불링겐 재단의 총서를 그에게 맡겼다. 그들은 출판 위탁에 앞서 그 총서가 '학문적으로 편협되지 않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도 최고의 지성들에 의해 집필될 것, 나아가 기존의 출판물보다 더

욱 미려한 편집과 장정을 갖춘 신서일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볼프는 자신이 출판하는 분야 모두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서 모든 일을 해치웠다. 그의 당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의 너비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 총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63년 그가 76세의 일기로 별세한 이후 그에 관한 출판물은 적어도 미국의 경우 거의 없었다. 그런데 결국 최근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25년전 독일에서 출간되었던 그에 관한 소책자를 바탕으로 에세이와 서간문, 그리고 방송용원고 및 미망인 헬렌 볼프가 제공한 자료를 덧붙여 한 권의 아름다운 책으로 번역 출간하였다는 점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책명은 「쿠르트 볼프」(*KURT WOLFF, A Portrait in Essays and Letters.* Edited by Michael Ermarth. Translated by Deborah L. Schneider. 224 pp. Chicago).

이 책 가운데에는 생전의 볼프와 서신을 주고받았던 위대한 작가들, 가령 카프카, 헤르만 헤세, 파스테르나크 등의 편지들이 함께 실려 있어 작가연구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출판가 볼프가 가졌던 성격, 가령 확신에 찬 목소리, 지적이고 남의 말에 귀기울일 줄 알며,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의 편린들과 나아가 어떻게 해서 그는 뛰어난 출판가가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원인을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값지다. 사실 스스로 털어놓듯 그는 출판관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출판가라면 책에 대한 味覺과, 원고에 대한 감별력, 그리고 출판하고자 하는 그 책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필자에 대한 인내에 찬 양보심과 더불어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판가라면 모든 창조적 작가는 일률적이지 않고 "좀 이상한 놈들"이라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출판가론'을 이렇게 뼈만 추려놓다보니 별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金言錄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그의 편지 속에서—특히 그가 파스테르나크에게 보낸 편지속에서 음악과 철학에 대한 글을 뽑아 읽다보면, 그의 감성적이고 지적인 깊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보다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일년에 수백종의 책을 찍어내는 사람을 위대한 출판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출판상인' 일지언정 위대한 '출판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출판가란 '자신이 출판한 모든 책의 모든 페이지에 대해 무한책임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출판가는 책에 필요한 모든 기예, 이를테면 활자체, 디자인, 종이, 잉크, 제본, 장정, 美的 감각 등에 통달해 있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출판가는 필자의 글에 대한 '격렬한 열정'과 함께, 읽어야만 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출판한다는 성스러운 책임감을 더불어 갖추어야 한다. 좀 독재적이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러한 수식어; 독재적이니, 전제적이니, 민주적이니 하는 말들은 전혀 볼프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오로지 좋은 책, 보다 나은 책, 보다 필요한 책을 만들어 내느냐 못하느냐에 있었을 뿐이다.

전자출판을 운운할 만큼 출판의 물적대대가 어느 시대보다 흥성한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만한 책은 과거보다 크게 많아지지 않은 출판현실을 곱씹어 보면, 현재 독자들이 볼프와 같은 출판가의 출현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쿠르트 볼프」는 일반 독자들이 아니라 출판관계 인사들의 정독을 요청할 만한 양서이다.

한 알의 알약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대개 새 시대의 개막은 '프랑스혁명'이라든지, '러시아혁명'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기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령 극히 미소한 물체, 이를테면 아스피린의 개발과 같은 사건을 역사적 분기점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길까? 최근 찰스 만(Charles C. Mann)과 마크 플럼머(Mark L. Plummer)가 새 책, 「아스피린 전쟁」(*THE ASPIRIN WARS, Money, Medicine and 100 Years of Rampant Competition.* 402pp. New York: Alfred

A. Knopf)을 통해 지난 100년에 걸친 작은 알약의 역사를 논하면서 독자들이 알고자 했던 놀랄 만한 진통제를 둘러싼 갖은 이야기거리를 전해주고 있다.

아스피린은 지난 19세기 중반 프랑스인 화학자 찰스 프레드릭 게르하르트에 의해 '미완성의 형태'로 만들어졌었다. 그러다가 15년쯤 후 독일인 화학자 칼 요한 크라우트가 보다 발전된 형태로 정제시켰고, 그 뒤 20세기 초엽 독일 콜른지방에서 화학염료생산업체인 바이엘회사의 연구원이었던 켈릭스 호프만이 상품 가치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아스피린을 완성시켰다. 당시 바이엘사는 뛰어난 화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천재로서 오늘날에도 전설적 인물로 남아 있는 프리드리히 칼 뒤스버그가 사장으로 있었다. 그는 특하면 "은 세계사람들이 서랍속에 아스피린을 비치하도록 하고야 말겠다"는 포부를 털어놓던 인물이다. 그리고 사실 이 약품(본디 '스피라에아'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진통제)의 이름을 아스피린이라고 붙인 것이 바이엘사에 의해서이고 또한 '스피라에아' 계열의 진통제를 아스피린이라는 바이엘사의 약품 상호로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것도 현실이라면 뒤스버그 사장의 호언은 단순히 허풍만도 아니었던 셈이다.

저널리스트로서 로버트 크리스와 함께 「제2의 창조: 20세기 물리학 혁명가들」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던 찰스 만과 환경문제 전문가로서 연방무역위원회의 경제학자였던 마크 플럼머가 함께 저술한 이 책, 「아스피린 전쟁」은 세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은 아스피린을 통해 급속히 성장한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사의 눈부신 발전사와 함께 뒤이은 미국 제약회사들과의 시장 쟁탈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1차대전 이전이 터지기 전에 바이엘은 '아스피린'이라는 약품명으로 특허를 얻고 상표등록도 하여 뉴욕주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미국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1차대전중 미국내 바이엘의 재산은 敵産으로 강제징발되어 당시 '변비약, 비듬치료제 또는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조잡한 약품을 만들고 있던 월링타라는 조그만 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그후 세계 약품시장을 둘러싼 경

쟁이 스티어링 제약회사와 바이엘사 사이에서 싸운 건 혈전으로 전개되었다. 그 싸움의 요체는 바이엘이 개발한 아스피린을 스티어링사의 사장 윌리엄 바이스가 간교하게 모방하여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이들간의 드러매틱한 싸움은 1920년에 들어서야 해결을 보게 되는데, 당시 점차 성장하고 있던 남아메리카 시장을 둘러싸고 시장과 이익의 분배에 어렵사리 합의함으로써 휴전하게 된 것이다.

「아스피린 전쟁」의 두번째 장은 20세기에 들어 미국정부가 점증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싸운 싸움의 기록이다. 애초에 이 전쟁은 1908년 김벌법정에서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 재판의 성격은 이익이나 시장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아스피린이라는 약품이 제약회사들의 선전만큼이나 투쟁과 뇌영양제로서 효과가 있는가라는 데 초점이 있었다. 그 결과 피소된 허퍼 제약 회사가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셋째 장은 약품의 효용을 더욱 강조하여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끊임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들과 국민의 건강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를 일람표이다. 그 줄다리기는 적어도 오늘의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 개발된 약품의 선전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될 만큼 제약회사로서는 대단히 뼈백한 현실로 결과되고 있다. 사실 저자들이 잘 지적하듯 최근 새롭게 발견된 아스피린의 효용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심장병에 대한 예방효과이다. 바로 이 아스피린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특효가 있다는 효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셋째 장의 주제이다.

사실 이 책, 「아스피린 전쟁」은 킬링타임용의 읽을거리가 아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인데 특히 약품선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장은 더욱 그러하다. 일반 독자들이라든 후기에 실린 저자들의 간추린 설명을 우선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여튼 현대 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새로운 관점의 역사서술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많은 통찰과 안목을 빌 수 있을 것이다.